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5호 (2024.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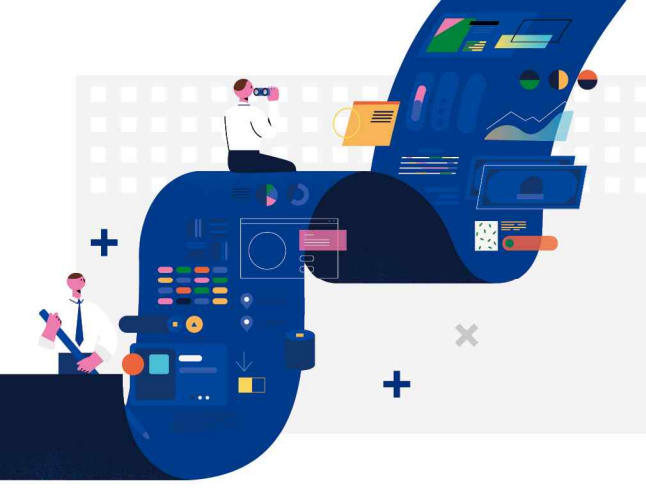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노동)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와
노동시장 변화 가능성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5호 (2024.03.15)

Cotents

I. 이 슈

(노동)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와 노동시장 변화 가능성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통) 국토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 11

(금융)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11

(경제) 환경부,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 공개 12

(금융)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단계적 적용 시행 12

(교통) 수도권 GTX-B 노선 상반기 내 전구간 착공, 2030년 개통 예정 13

(금융)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사업, 4월 3일까지 대상기업 모집 13

(산업)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1,197억 규모 지원사업 추진 14

(교육)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 강화한 “24년 매치업 기본계획” 발표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노동

산업계의 인공지능(AI) 적용 사례와 노동시장 변화 가능성



#노동시장 #인공지능(AI) #활용례 #변화 가능성 #정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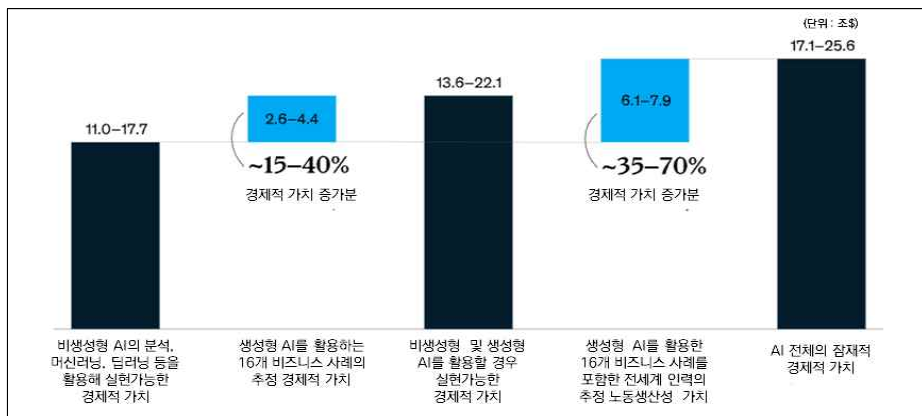
-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의 업무적 활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가운데, IMF는 전세계 일자리의 약 40%가 AI 기술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지적
-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제조공정 및 품질·재고관리 자동화 등 일부 산업에 활용되던 AI 기술은 2022년 생성형 AI인 ChatGPT가 시장에 등장한 이후 △자동차 △금융 △뷰티 △의학 △교육 등 더욱 다양한 산업군에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 맥킨지(McKinsey&company)가 2022년 수행한 기업의 AI 채택 여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AI 채택률은 2017년 20% 수준에서 2022년 50%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콘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¹⁾는 미국 근로자의 약 56%가 업무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²⁾
 - 기업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AI 기술의 평균 개수 역시 2018년 1.9개에서 2022년 3.8개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의 로봇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및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뿐 아니라 자연어 텍스트 이해(Natural-language text understanding), 딥러닝(Deep learning),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McKinsey&company, 2022)³⁾
- 소비자, 미디어, 통신,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AI 및 분석 관련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델로이트(Deloitte)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 성과 및 직무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Deloitte, 2022)
 - 2023년 3월 발표된 OECD의 「AI가 업무 현장에 미치는 영향(2023.03)」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 및 제조 분야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 80%가 적절한 AI 기술 활용은 현장에서의 업무 성과를 개선한다고 응답했으며, 약 61%가 AI 활용으로 인한 업무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
- IMF(2024.01)는 전세계 40%의 일자리가 AI 기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속해있는 국가 및 산업 또는 개인의 직무 및 기술활용수준에 따라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1) 콘퍼런스보드(the Conference board)는 1916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으로, 전세계 경제단체 및 기업 등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제·경영 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행.

2) McKensey&Company(2022.12) 및 the Conference board(2023.09).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역시 「2023년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통해 설문 응답 기업 중 약 75%가 향후 AI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

3) ①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 현실 세계의 객체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 및 동물의 시각 체계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기술(분야)
 ②자연어 텍스트 이해(Natural-language text understanding) :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연어로 입력된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과정
 ③딥러닝(Deep learning) :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기술
 ④디지털트윈(Digital twin) : 현실의 기계,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하여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인공지능(AI) 기술은 로봇, 패턴인식, 이미지 처리, 컴퓨터 비전, 자연어 인식,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접목되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2022년 생성형 AI인 ChatGPT가 시장에 등장한 이후 산업 분야에서의 AI 기술 적용이 더욱 확산
 - 인공지능(AI)이란 '인간의 지능 또는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학습·판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및 컴퓨터시스템'으로, 센서, 지리·공간정보, 로봇공학, 음성인식 등과 결합하여 인간의 지능 또는 개입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
 - 제조공정에서 로봇·기계가 품질검사 및 재고관리를 수행하는 지능형 공장, 운전자 없는 자동운전을 가능케하는 자율주행차, 금융사 앱(app)에서 소비자 문의를 대응하는 챗봇 등이 AI 기술을 산업계에 적용한 주요 예시
 - 즉, AI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작업을 자동화·대체하거나, AI의 도움을 통해 기존의 작업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 증대 달성이 가능⁴⁾



* 자료 : McKinsey Digital(2023.01)

【그림 1】 AI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제조·건설)** 제조 및 건설산업에서는 AI 기술과 접목한 센서·카메라를 활용해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작업 과정 중 발생하는 결함(불량)식별에 AI 시스템을 활용
 - 제조업은 AI 기술이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로, 제조공장의 장비·라인 및 위험관리·재고파악 등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함으로써 생산성 및 안전성을 향상
 - 포스코(POSCO)의 경우 용강을 반제품으로 만드는 연주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설비의 이상 유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대제철은 제강·냉연 등 공정 과정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용도에 맞는 재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yundai Motor Group Innovation Center Singapore)에서 AI를 결합한 △자동물류 시스템 △조립품질 검사 시스템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의 차량생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시험
 - 이 외에도 LG, 삼성, SK 등 대기업의 가전·배터리·반도체 등 각 사업 부문에서도 AI 기능을 탑재한 검사장비

4) World Economic Forum(2023.09).

도입을 통해 맨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시간 검사를 수행하여 제조사의 불량률을 감소

- 건설업계 역시 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부문에서의 AI 기술도입이 두드러지는 추세
- 롯데건설은 AI 전담 조직인 'AGI TFT'를 통해 △AI 업무 자동화 △스마트 AI 기술 확보 △신사업 AI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DL이앤씨는 모든 건설 현장에서 균일한 품질이 가능케하는 AI 기반 설계기술을 활용 중
- 포스코이앤씨는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 안면인식 및 열화상 체온측정 시스템, 영상분석 기반 변위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삼성물산은 인공지능 카메라와 타워크레인 과부하방지 모니터링 장치를 건설 현장에 도입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경감을 위해 노력

○ **(금융·보험)** 금융·보험업계에서는 대다수의 기업이 자사업(app)에 챗봇(chatbot)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AI에 기반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고객 데이터 분석 △손익 예측 △포트폴리오 관리 △위험 및 사기 방지 △신용·사고위험 평가 등을 수행

- 해외 주요 은행에서는 고객 충성도 제고 및 금융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업무에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은행권 및 증권사에서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16년 AI 플랫폼인 'Marcus'를 개발하여 대출 인수, 신용도 분석, 대출자 행동 예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18년 대화형 금융거래 앱인 'Erica'와 IPO 거래 예측 시스템인 'PRIAM'을 출시하여 고객의 금융생활 관리를 지원
- 이외에도 미국의 JP모건(JP Morgan), 스위스의 UBS Group, 독일의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홍콩상하이 금융그룹(HSBC) 등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에서는 △반복적 업무 자동화 △이상징후 탐지·예방(리스크관리) △맞춤형 AI 솔루션 제공 등 기존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성을 증진
- 국내 금융권에서는 정보보안 및 규제 등으로 인해 AI 기술도입이 늦은 편인데, 최근 KB국민은행의 'KB-GPT', 우리은행의 'AI 뱅커', 신한은행의 'AI 컨택센터' 등 자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 맞춤형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 보험업계 역시 보험사의 상품개발부터 고객 개발에 이르는 업무 가치사슬 전반에 AI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업무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를 증대
- 국내 보험사도 보험사기 위험 탐지를 위해 AI 기술을 활용⁵⁾하거나 AI를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자동화⁶⁾하는 등 AI 기술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AI 기술 활용이 초기단계 수준

5)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ABL생명, NH농협생명 등.

6) 삼성화재, 한화생명, KB손해보험 등.



* 자료 : 보험연구원(2023.12)

[그림 2] 보험업 가치사슬별 생성형 AI 기술 활용방법 및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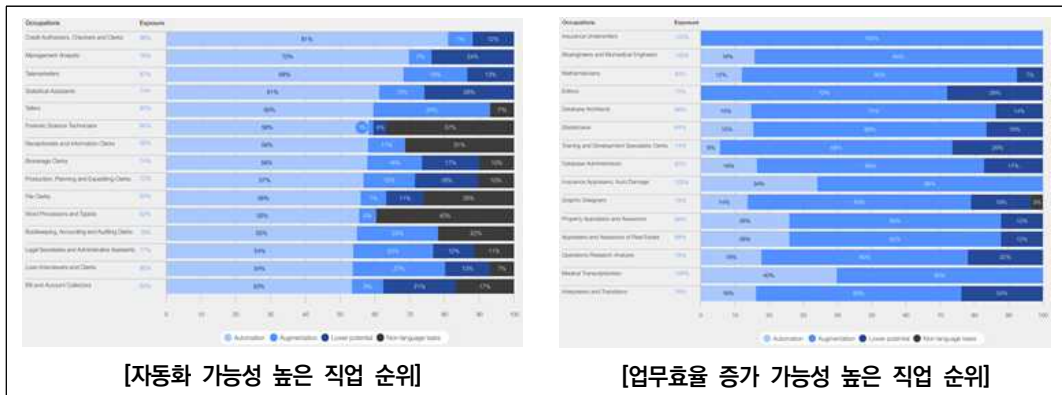
- **(의료·뷰티)** 의료·뷰티업계에서는 주로 AI와 메타버스, AR 등의 다른 디지털 기술 또는 기계와 결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정확성을 향상하는데 활용
 - 의료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해 병원 상담 및 원격진료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AI의 머신러닝을 통한 의학 자료 수집·관리로 질병 진단 및 신약 개발 등을 위한 프로세스를 단축
 -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은 인공지능(AI)기업 딥노이드와 함께 메타버스 병원을 구축하여 병원 방문 없이 진료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AI 기반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하여 진료상담 기록의 정확성을 향상
 -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 및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AI 의료영상업체인 Arterys는 심장 MRI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축적해 진단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며, 제약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약물 후보 추출, 약물 유효성 등을 신속·정확하게 추정⁷⁾
 - 뷰티업계는 초개인화 트렌드에 발맞춰 AI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기기를 통해 고객에게 ‘1인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제공
 - 로레알코리아는 2020년 CES에서 개인이 원하는 색을 조합해 즉석에서 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루즈 쉬르 메쥬르’를 선보이며, AI기반 맞춤형 뷰티 시스템인 ‘페르소(Perso)’를 적용하여 피부색·패션 등을 고려한 그날의 립 색상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
 - 아모레퍼시픽은 AI를 통해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커스텀미 (COSTOM.ME)’를 출시·운영하고 있으며, 시코르(CHICOR)도 AI를 활용해 피부 진단 및 메이크업 방법을 추천하는 거울인 ‘Zmirror’를 개발
- **(교육·미디어)** 교육 및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학습자(작업자)의 활동을 돕거나, 학습된 고객 패턴에 따라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

7) Recursion Pharmaceuticals, Atomwise 등.

- 교육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결과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해외 에듀테크 기업인 △Quizlet(Q-Chat) △Duolingo(Duolingo Max) △Coursera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이스크림에듀(드림라이팅) △스터디맥스(에이든, Aiden) △매스프레소(Qanda)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자사 앱(app)에 AI 기반 코칭 솔루션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
 -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Brandwatch(빅데이터기반영향력분석) △Cleanup.pictures(객체편집) △Canva(콘텐츠 제작) △Otter.AI(음성의 텍스트 변환) △Beautiful.ai(PPT 제작) △Grammarly(문법교정) 등 다양한 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
 - 엑스엘에이트(XL8)는 컨텍스트 인식(Context Awareness)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는 AI 통합 번역 솔루션 '미디어캣(MediaCAT)'을 개발했으며, 엘솔루(LLSOLLU)는 AI 동영상 자동 자막번역 및 편집 서비스 '서브에디터(SubEditor)'로 영상 속의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번역해서 편집된 자막을 제공
-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산업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AI 기술이 글로벌 경제 생산성의 증대를 이끌 뿐 아니라, 기존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대체 또는 강화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⁸⁾
- 특히 2022년 말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래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확산하여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McKinsey(2023.09)에 따르면 생성형 AI만으로도 미국 경제의 약 10%에 해당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Goldman Sachs와 McKinsey는 AI가 산업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GDP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숙련작업을 대체하거나 고숙련작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용 승인(Credit Authorize) △관리 분석(management analysis)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통계보조(Statistical assist) 등의 업무는 향후 자동화 가능성이 높음
 - 반면 비판적 사고 및 복잡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보험업(Insurance Underwriting) △생명공학(Bioengineering) △생물의학(Biomedical) △편집(Editorial) △통계학(Statistic) 등은 AI 기술 활용에 따라 업무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행과 노동연구원 역시 산업계에 AI 적용이 확대될수록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신규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직무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분석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언급
 - 한국은행은 국내 취업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고, AI의 비반복적·인지적 업무 대체로 인한 AI 노출지수가 높은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상승률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국은행, 2023.11)

8) CNN Business(2023.03), Investopedia(2023.12), McKinsey&Company(2024.03), McKinsey Digital(2023.01), McKinsey Global Institute(2023.09), OECD(2023.07), World Economic Forum(2023.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3.10), 한국은행(2023.11) 등.

- 노동연구원의 AI 도입으로 인한 직무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AI 도입률의 증가율이 클수록 직무변화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AI 기반 직무변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대체(소멸)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노동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분석(노동연구원, 2022.07)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23.09)

[그림 3]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군별 영향

- 인천시에서는 AI 기술로 인해 촉발된 미래에 대한 지역 산업계 및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등의 대응력을 증진하기 위해 AI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에 투자하고, 직무 맞춤형 AI 활용 및 책임있는 AI 활용(윤리) 관련 교육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등 AI시대 적응을 지원할 필요
 - 지역 내 AI 기술 기업 및 AI 응용기술의 성장을 위해 재정을 통한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계의 AI 관련 기술도입을 적극 지원할 필요
 - AI 관련 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AI 관련 산업계 고도화 방안⁹⁾ 등과 발맞춰 AI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설비도입 등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를 강화하고, 금융지원·컨설팅 등의 자체사업 마련이 요구
 -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 등의 AI 활용능력 격차를 감소시키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AI 관련 실무능력 함양할 수 있는 산·학·연 협동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강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한국GPT협회 △디지털융합교육원 △프로에듀사회교육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강서구 등에서 시행하는 AI 기반 업무활용법 및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교육을 참고하여 '직무별 맞춤형 AI 활용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및 교육지원을 수행할 필요¹⁰⁾
 -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AI 모델 구축 및 학습(훈련) 시의 개인정보침해·편향성 방지 △AI 응용 프로그램의 윤리적·도덕적 활용 △AI 활용 콘텐츠의 진위여부 판별 등 AI 이용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교육체계 마련이 중요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2023.01),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04),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방안」(2023.09),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2023.09) 등을 통해 산업계의 AI 기술개발·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AI 관련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

10) 민간 및 공공에서는 AI 분석플랫폼 활용법(LG화학), 업무효율화를 위한 AI 활용법(디지털융합교육원), ChatGPT 활용법(프로에듀사회교육원), 대학생 AI 활용 마케팅(한국인터넷광고재단), ChatGPT 활용법(강서구) 등의 교육이 활발히 진행.

건설 > 건설11)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4년 1월 국내 건설시장은 선행지표(건축허가 면적·건설수주액) 및 동행지표(건축착공 면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우려
 - **(수주·허가)** 지난해에 이어 건설수주액 및 건축인허가 면적의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월 건설수주액은 공공수주가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 민간수주가 62.4% 감소함에 따라, 수주 총액이 전년동월대비 53.6% 감소하며 최근 3년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
 - 건축인허가 물량 역시 전년동월대비 15.3%, 전월대비 14.8% 감소한 10,779천m² 수준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감소세가 최근 들어 다소 둔화
 - **(착공·기성)** 건축착공 면적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건설기성액은 건축·토목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한 6,013천m² 수준으로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는 지속
 - 1월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19.5% 증가한 1,457.0백억 원 수준으로, LNG 터미널공사 및 대단지 아파트 공사 실적 등이 반영되며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수주·허가·착공 등 선행지표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상
- **(인천건설)** 2024년 1월 기준 인천은 건설수주액 및 건축착공 면적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가운데,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하며 건설시장 선행지표가 엇갈리는 모습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건축허가는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
 - 인천 건설수주는 민간수주 증가(582.3%)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39.9% 증가, 전월대비 36.2% 감소한 70.2백억 원을 달성하며 수주 감소세가 둔화
 - '24년 1월 인천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월대비 28.7%, 전년동월대비 49.9% 감소한 456천m² 수준으로, 지난 '23년 5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월대비 19.1%, 전년동월대비 217.4% 증가한 848천m² 수준으로, '24년 11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증가한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증가

11) 건설산업 시장 구분 시 공공부문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민간부문은 발주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자사업이나 국내 외국기관인 경우를 의미함.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지역	구분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4.01
전국	수주액 (증감률)	1,769.6 (-29.0)	943.4 (-48.4)	827.7 (-52.7)	1,400.2 (-35.3)	1,425.1 (42.3)	1,261.1 (-19.6)	3,368.2 (43.0)	856.4 (-53.6)
	기성액 (증감률)	1,637.9 (10.6)	1,367.3 (12.1)	1,411.7 (12.5)	1,462.3 (13.8)	1,449.5 (6.1)	1,522.0 (4.4)	1,787.2 (-0.1)	1,457.0 (19.5)
인천	수주액 (증감률)	133.7 (12.6)	13.4 (-80.1)	32.0 (-71.6)	54.9 (-12.8)	68.3 (171.2)	108.7 (83.5)	110.0 (-10.0)	70.2 (139.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4.01)

○ **(전국주택)** 2024년 1월 기준 전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 감소세와 미분양 주택 증가세 지속되며, 건설업계의 불안이 증대

- **(허가)** 2024년 1월 국내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72.7% 감소,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한 25,810호 수준으로, 지난해 1월 인허가 실적이 저조했던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감소세는 지속¹²⁾
 - 공공부문의 인허가 수는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이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하여 전체 인허가 건수 증가에 기여
- **(미분양)**¹³⁾ 2023년 2월 이후 감소하던 주택 미분양 물량이 지난 11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 1월 기준 전월대비 2.0% 증가, 전년동월대비 15.4% 감소한 63,755호를 기록

12) 주택의 경우 공급(입주)까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13)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4.7%, 전년동월대비 50.6% 증가한 11,363호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

○ **(인천주택)** 공공부문 물량 감소로 인천지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 미분양 주택 물량은 증가세로 전환

- **(허가)** 인천의 2024년 1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60.6% 감소, 전년동월대비 393.2% 증가한 2,175호 수준으로 최근 3년간의 1월 인허가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
 - 인천시의 경우 2021년부터 매년 연말(11~12월)에 공공부문의 주택 인허가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1월 실적은 전월대비 감소하는 편
- **(미분양)** 2024년 1월 인천의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5.4%,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한 3,094호로, △전국 추이와 유사하게 '23년 11월 이후 증가세 전환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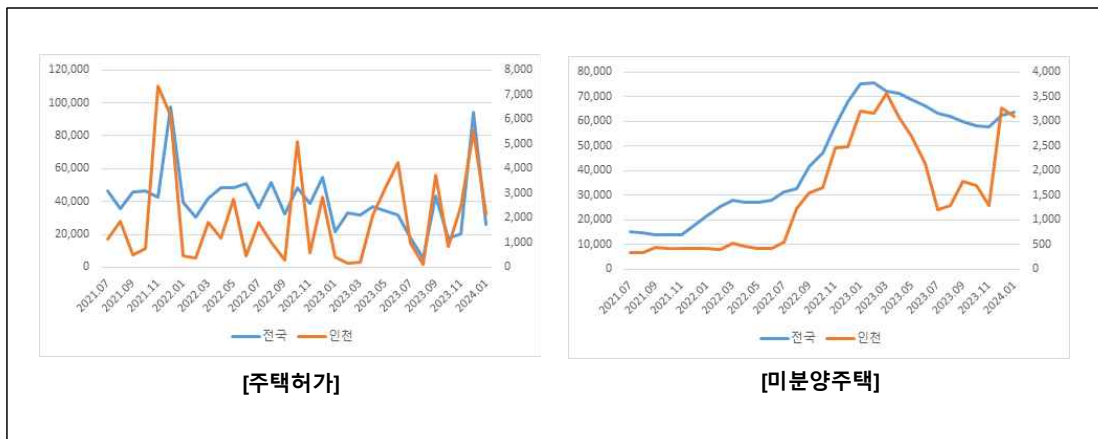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3.10	'23.11	'23.12 (p)	'24.01 (p)	'23.01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22	1,373	66,180	422	609	-99.4	-30.7
	민간	18,025	19,180	28,240	25,388	20,816	-10.1	22.0
미분양	민간	58,299	57,925	62,489	63,755	75,359	2.0	-15.4
	(준공후)	10,224	10,465	10,857	11,363	7,546	4.7	50.6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4.01)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1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17.2	31.5	102.8	30.8	136.7	-17.0	158.3	23.2	161.9	26.3	154.2	-5.2
자동차	127.2	13.2	123.0	11.1	120.2	9.2	127.1	11.3	113.4	6.3	144.4	15.9
기계장비	93.5	1.3	92.2	0.5	140.1	-9.2	126.7	21.9	113.3	3.2	207.4	-0.5
바이오-의약	137.8	19.1	130.3	1.2	-	-	143.2	39.0	121.1	-7.5	-	-
바이오-화장품	93.3	5.1	94.5	4.2	100.8	-7.1	110.2	18.6	112.2	29.0	102.4	-1.1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2,760	29.2	62,391	-64.2	474	-76.0	6,545	580.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통계청 계절조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발표 자료부터 값이 수정되었으며,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통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보험인제도가 폐지되고,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가 개선
 - 금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자동차 봉인제도가 IT기술 발달 및 번호판 부정 활용 감소 등으로 인해 폐지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별도의 봉인 탈부착 없이 번호판의 차량 고정 방식만 유지
 -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역시 앞면 유리창에 부착할 필요 없이 발급만으로 임시운행이 가능토록 개선
 - 한편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듯이 앞으로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
 -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음주운전자분 아니라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를 보호받기가 어려워질 예정

금융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개편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신규 출시
 - 해당 상품은 19~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

구분	이자율	가입연령	회당 납입한도	소득공제 /비과세 한도	중도인출 /당첨후 추가납입	분양대금 대출연계
주택청약 종합저축	2.0 ~ 2.8%	제한 없음	2 ~ 50만 원	가능 / 해당없음	불가능 / 불가능	해당없음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2.0 ~ 4.3%	19 ~ 34세	2 ~ 50만 원	가능 / 적용	불가능 / 불가능	해당없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0 ~ 4.5%	19 ~ 34세	2 ~ 100만 원	납입액의 40% / 이자소득 500만	가능(당첨 계약금 납부 목적) / 가능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이자 2%대)

#환경부

- 환경부의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에 따라 2월 20일부터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
 - 금번 지침은 ①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②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를 통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③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④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 개편을 시행
 - 세부 지침과 차종별 지원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는 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금액을 공시

구분	주요 차종	지원 금액
승용·초소형 전기차('24)	아이오닉5·6, GV60, 코나 일렉트릭, EV6, 니로, EV9, 레이, iX1·3, i4, Peugeot, EQB300, 토레스, Polestar 등	163 ~ 706 만 원
전기화물차('24)	MASTA VAN, MASTA HIM, 포터 II 일렉트릭, 포트로, 봉고, 다니고,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등	194 ~ 1,306 만 원
전기승합차('24)	카운티, 테라벤키즈11, 일렉시티, SMART110, HYPERS 등	767 ~ 7,000 만 원
전기이륜차('23)	EG300, ECOOTER, E2K, GOGORO2, LEO 등	79 ~ 252 만 원
전기굴착기('23)	iX10e·35e·17e·12e, TP10-E, DaVinci10, DX20ZE 등	800 ~ 2,000 만 원
수소차('24)	넥쏘, 엑시언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2,250 ~ 72,000 만 원

#금융위원회

-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반영한 '스트레스 DSR'을 적용되며, 향후 '스트레스 DSR'의 단계적 시행이 예고된 만큼 신규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점차 줄어들 전망
 -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등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의 가장 높은 수준과 현재 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금리변동의 과다·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하여 결정
 - 올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단계에는 산식에 따라 결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 수준인 0.38%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24년 하반기에는 산출 금리의 50%, '25년부터는 산출 금리 100%가 적용
 - '24년 상반기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은행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모든 DSR 적용 가계대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

#기획재정부

- 지난 2월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실시협약(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내에 수도권 GTX-B노선 전구간을 착공하고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수도권 GTX-B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노선 구간이 총 82.8km에 달하는 장거리 급행철도
 - 금번 통과한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 내 GTX-B노선 전구간에서 착공을 시작한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 GTX-B노선은 약 72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친 뒤 40년가량 운영될 예정이며, 용산에서 상봉에 이르는 약 19.95km 재정 구간을 3월에 착공한 이후 용산에서 인천, 상봉에서 마석에 이르는 민자 구간 역시 올 상반기 내 착공 예정
 - GTX-B노선이 완성되면 인천대학교 입구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30분 수준으로, 남양주시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25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시대가 조성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기업을 모집
 -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또는 연구개발(R&D)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에 총 2,21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분야	•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및 R&D 투자 프로젝트 자금
융자 비율	•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0%, 대기업 50% 이내
융자 한도	• 프로젝트 당 최대 500억 원 이내, 최대 3년 지원(시설자금 500억 원, R&D자금 100억 원 이내)
대출금리	•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p(대기업은 1.5%p) 차감
대출 기간	• 최대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197.2억 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핵심기술인 메타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개발지원 △인력육성 △기업육성 △저변확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주요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분야	주요 내용
플랫폼 개발지원	•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선도모델 발굴·확산을 위한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330억 원) • 재난·사고 예측 및 대응을 위한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실증(80억 원, 지속)
인재 양성 (187.25억 원)	• 산업계 수요 기반 실무형 메타버스 전문인력 교육(650명) • 석·박사 중심 메타버스 랩 운영(8개소)·청년 메타버스 아카데미(300명)·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운영 (8개소) 등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신규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7.5억 원) • 홀로그램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약 34억 원) • 특화 지원시설을 통한 메타버스 콘텐츠·디바이스 개발실증 및 테스트 지원(232.59억 원) •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사업(21억 원) 및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사업(67억 원) • 약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술개발 (225.76억 원)	• XR 핵심기술개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홀로그램 기술개발 등
법제도 지원 및 저변확대	• 「가상융합산업진흥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확대·운영 및 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 상시 운영 • 메타버스 관련 행사 연중 개최로 국민의 메타버스 체험·활용 기회 확대

#교육부

- 교육부가 대학생·구직자·직장인의 신산업 관련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
-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
- 금번 발표된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①(가칭)디지털 도약 캠프 시범운영 ②교육기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 ③지역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
- 올해 매치업 사업은 △항공·무인기(드론) △가상·증강현실 △빅데이터 △대체에너지 △지능형자동차 △스마트팜 △신에너지자동차 △의료메타버스 △D.N.A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클라우드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
- 산업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매치업 누리집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에 접속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과정 이수 시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

참고 자료

- McKinsey&Company, “The state of AI in 2022 – and a half decade in review”, 2022.12.06.
- World Economic Forum, 「Future of Jobs Report 2023」, 2023.05.
- the Conference board, “Majority of US Workers Are Already Using Generative AI Tools – But Company Policies Trail Behind”, 2023.09.13.
- Deloitte, 「Fueling the AI transformation: Four key actions powering widespread value from AI, right now. – Deloitte’s State of AI in the Enterprise, 5th Edition report」, 2022.10.
- OECD, 「The impact of AI on the workplace: OECD AI surveys of employers and workers」, 2023.03.
- Marguerita Lane, “AI 관련 사용자 및 노동자 대상 OECD 주요 결과”, *국제노동브리프*, 2023년 8월호, pp.30-42, 2023.
- Marianne Saam,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fence on Productivity and Employment – How Can We Assess It and What Can We Observe?”, *Intereconomics*, volume 59(1), pp.22-27, 2024.
- World Economic Forum, “Automation or augmentation? This is how AI will be integrated into the jobs of tomorrow”, 2023.09.18.
- World Economic Forum, 「Job of Tomorrow: Large Language Models and Jobs」.
- IMF, 「Gen-AI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2024.01.
- IMF, “SCENRIO PLANNING FOR AN A(G)I FUTURE”, 2023.12.
- 김재필, 「2024 IT 메가 트렌드」.
- 권기대,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 TechTarget, “artificial intelligence(AI)”.
- 현대자동차그룹, “사람과 로봇의 이상적인 조화”, 2023.11.21.
- 머니투데이, “[이슈속으로] 시가 바꾼 제조업 혁신 ‘스마트 공장’이 뜬다”, 2023.03.25.
- 머니투데이, “구글 클라우드, LG전자 AI 품질 검사 플랫폼에 ‘안토스’ 지원”, 2023.08.18.
- 미디어펜, “안전·설계·고객응대까지…건설사들 ‘AI’ 도입 확대”, 2024.01.12.
- CCTV NEWS, “[포커스온] AI는 방심하지 않는다, 안전 산업에 AI 우뚝”, 2023.02.01.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I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금융산업」, 하나Knowledge+, 2023.04.07.
- 애플경제, “글로벌 금융권의 ‘AI 친화도’는 어느 정도?”, 2023.04.18.
- 디지털조선일보, “생성형 AI 도입에 집중하는 금융권”, 2023.12.19.
-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에서의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 2023.12.
- IT조선, “[보험AI열전]①”3년뒤 3조 시장“…효율 제고 도움, 부작용 극복 과제”, 2023.08.24.
- 프라임경제, “보험업계도 혁신 바람...‘빅데이터·AI에 초점’”, 2024.02.22.
- KOTRA해외시장뉴스, “미국 헬스케어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2023.08.08.

- 라포르시안, “의료시스템 파고드는 AI, 진료 예약부터 상담·진단까지”, 2024.02.08.
- beautynury, “뷰티 산업 미래 'AI GPT'의 활용이 좌우”, 2023.02.27.
- 한국정경신문, ““피부 케어와 솔루션도 맞춤형”..아모레퍼시픽, 커스텀미(COUSTOM.ME) 출시”, 2022.02.28.
- ask edtech, “생성AI를 적용한 에듀테크 사례 모음(6.9. 업데이트)”, 2023.04.17.
- 서울경제, “글로벌 에듀테크 관다, ‘프렙파이’ 출시…미국 시장 본격 공략”, 2024.03.08.
- 방송과 기술,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효율성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과 가치”, 2023.09.08.
- McKinsey Global Institute, “Generative AI : How will it affect future jobs and workflows?”, 2023.09.21.
- McKinsey&Company, “Generative AI and the future of New York”, 2024.03.04.
- Mckinsey Digital,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 : The next productivity frontier”, 2023.01.14.
- Investopedia, “Productivity Gains From AI To Boost Economic Growth in 2024 and Beyond”, 2023.12.18.
-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2023.07.
- CNN Business, “300 million jobs could be affected by latest wave of AI, says Goldman Sachs”, 2023.03.29.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 2023.10.
- 한국은행, 「AI와 노동시장 변화」, BOK이슈노트, 2023.11.16.
- 노동연구원, 「AI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영향평가브리프*, 2022.07.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국토교통부, 2024.02.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국토교통부, 2024.02.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산 전기차 사면 최대 690만원 지원…아이오닉 5·6모델”, 환경부, 2024.02.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금융위원회, 2024.02.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GTX-B노선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민자사업심의 통과”, 기획재정부, 2024.02.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GTX-B 전구간, 상반기 착공…지방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 국토교통부, 2024.02.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탄소 감축 시설·R&D 투자 기업에 금리 1%대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4.02.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메타버스산업 진흥에 1197억원 투입…전문인력 650명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2.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장인·구직자 등에 신산업분야 직무교육 무상 실시”, 교육부, 2024.02.29.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5호(2024.03.15)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4년 03월 15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